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1주일

제35권 13호(나해) 2015년 2월22일

[묵상]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유혹

예수님께서 악마의 유혹을 당하신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이것은 시시각각으로 우리 곁을 맴돈다.
이것을 이겨 나가는 데에는 너무나 큰 시련과 고통이 따른다.
이것을 이겨내야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위대한 지성과 감성의 힘이기도 하다.
이러한 유혹을 이겨나갈 때
인간이 비로소 인간다운 멋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유혹과 시련의 극복 여하가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불행을 결정지어 주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고
이것이 바로 삶의 보람이기도 하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래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트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사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 꾸리아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3: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쇄신

제3장

‘성령쇄신운동’의 빛과 그늘

2) 가계(家系) 치유

성령쇄신운동은 하느님 현존에 대한 강렬한 체험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머리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한층 더 굳건하게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체험에만 집착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 실제로 가르치는 임무를 맡은 봉사자들 중에서 개인 체험에 너무 치중함으로써 정작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전해 주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통해 교의적 믿음이 확고하게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교회의 믿음과 연결이 없는 순수한 체험은 맹목적”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신앙 체험이든 절대화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교회 공동체의 믿음과 가르침에 기준을 두고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신앙 체험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감성을 지나치게 자극하고자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신앙 체험은 하느님의 선물로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성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관적 신앙 체험에 과도한 비중을 두어서, 마치 신앙은 이성과 논리를 배제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려면 감성적 체험과 건전한 이성적 판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령쇄신운동이 한국 가톨릭 교회에 도입된 이래로 성령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 주면서 신앙 쇄신 그리고 교회의 성장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빛이 강하면 그늘도 진하게 드리우기 마련이다. 따라서 빛과 그늘을 함께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빛과 그늘, 어느 한쪽만을 부각시키고 다른 한쪽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인 자세는 옳지 않다. 일부 성령쇄신운동 참여자들이 그러하듯이 빛만 바라보고 그늘을 간과하거나, 반면에 빛은 보지 않고 그늘만 강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빛을 발하는 긍정적인 측면은 소중히 간직하고 키워 나가며,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은 지혜롭게 다스리고 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하겠다.

<◆계속>

토요 특전 미사	(연)민찬기 요한, 최병위
	(생)김지수 보나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변혜경 올리안나, 박동옥 요셉, 권분남 콜롬바,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이용식 베드로, 강소아 & 손영달, 김기준 안젤라, 이필주 바오로, 배명신, 박희성 테레사, 김계성 아가다, 고영희테레사, 박정례, 연옥영혼, 이정희, 심정년
	(생)정하상 바오로 & 정올리아 & 정쥬마 & 정클라라, 서성용 베드로, 김정석 베드로, 김복순 벨라벳타, 성은혜 실비아, 우문주 테레사, 우창우 레오, 박홍룡 요셉, 송수천 시몬, 이병우 마리오, 오마우라 수녀 & 오창근 베드로 신부

오늘의 전례

제1독서 창세기(Genesis) 9,8-15

화답송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제2독서 베드로1서(Peter) 3,18-22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복음 마르코(Mark) 1,12-15

영성체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77	155	156
봉헌	418	269	264
성체	291	304	304
파견	149	157	157

우리도 광야에서 유혹을 겪지만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어 40일 동안 사탄의 유혹을 받도록 내버려두셨을까요? 또, 들짐승들로부터 온갖 위협을 받도록 하셨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사는 서울이라는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자주 광야에 홀로 버려져 있는 고독감을 느낍니다. 거의 매일 끊임없이 온갖 유혹을 겪으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 입을 것, 아무 것도 없고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결핍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자동차와 상품들로 넘치는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처럼, 화려한 재물을 미친 듯이 찾아 다니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예수님은 들짐승들로 말미암아 많은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매일 40여 명이 자살하고, 매년 2천여 명이 일터에서 죽어가고, 지구촌에서는 무한 경쟁시대에 신자유주의로 말미암은 극심한 빈부 격차 속에서 온갖 위협을 받는 가운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광야의 유혹 한가운데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중들었습니다. 우리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느님께서 여러 천사들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시중들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께서 생명과 사랑이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유혹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천사의 시중이 아니라, 부활의 능

력을 지닌 하느님 아버지의 손길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사실은 언뜻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과 비참한 운명을 생각해보면 위로가 되고, 오히려 우리는 근본적인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시어 시중을 들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에로 일으키시면서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 주수옥 신부 / 대방동성당주임

조출한 일기

그래, 잘할 거야. 하루에 한 가지만 다짐합니다.
그래, 괜찮아. 하루에 한 가지만 다독입니다.
어디 잘되나 보자. 하루에 한 가지만 미워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 하루에 한 가지만 욕심냅니다.
소나기처럼 달려드는 수많은 것들,
좋은 것도 하루 하나. 싫은 것도 하루 한 가지.
감당할 수 있게 하나씩만.

◆이영 아네스/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남성철 베네딕도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동 2,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사벳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서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사순시기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미사가 오후 7시30분 저녁미사로 변경되며, 미사후 전신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진행됩니다.
(2월27,3월 6,13,20,17일,4월 3일)

사순1주간 금요일: 꾸리아
사순2주간 금요일: 소공동체
사순3주간 금요일: 요셉회
사순4주간 금요일: 양업회
사순 5주간 금요일: 대건회
성 금요일 (오후 3시):안나회

◆ 사순절 합동판공성사 : 3월 26일(목요일)

재의수요일부터 성삼일 전까지의 고백은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미사 전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사순절 희생 애공 봉투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애공 봉투는 주님 만찬 성 목요일(4월2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본당 수녀님 이.취임 안내

그동안 저희를 기도와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던 오 마우라 수녀님께서 임기를 마치고 2월 25일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새 임지에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수녀님으로 김 마누엘라 수녀님께서 2월 23일 한국에서 오십니다. 무사히 잘 도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론 청년회 사순 피정 안내

- 주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오 복음 18'20")
(청년 공동체의 삶과 의미)

- 일시: 2015년3월 7일 (토) 6pm ~ 3월 8일 (주일) 6am @ 본당
- 음식 및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사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최태훈 아오스딩 ☎(310)508-2123

◆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순 피정

- 일시 : 2월27일(금)~3월1일(주일)
- 장소 : 꽃동네
37885 HWY. 79. S. Temecula, CA 92592
- 참가비 : \$60 (1/18~2/8 등록시), 이후 \$85
- 준비물 : 성경, 묵주, 슬리핑백, 재킷, 세면도구, 학교티셔츠

2/27일 금요일 성당에 오후 4시30분 까지 집합. 5시에 정확히 버스 출발하오니 늦지않게 4시30분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김낙기 바오로 주일학교 교장☎(310)709-3343

◆ 바오로 딸 수녀님들이 "한국 가톨릭교회의 신앙 선조들" 책 세 권을 기증해 주셔서 사무실 옆 책꽂이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고 읽고 반납해 주십시오. 아울러 성당 비품을 빌려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대장에 기록해주시고 반납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책, CD, 열쇠, 의자, 테이블, 그릇, 프로젝터...등등)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2월22일(주일) * PV1반 : 육개장(\$3)
* 주일학교 : 피자(8학년)
- 3월1일(주일) *소공동체 : 김밥 (\$4)
* 주일학교 : 오뎅국과 밥 (5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경철호 권태만 금영도 김대우 김은학 김정엽 김종렬 김찬구 모은기 민경근 박선희 박정자 박종민 반정이 송영미 신경훈 신순철 양영관 엄혜은 오신재 이경수 이근태 이민상 이병우 이복임 이우성 정규숙 정훈모 차병용 최기호 최진수 최희숙 한창주 홍석인 송마이클 한길선례	성전헌금	경철호 권태만 금영도 김대우 김정엽 김찬구 모은기 민경근 박선희 박정자 신경훈 신순철 양영관 이경수 이근태 이민상 이병우 이복임 이우성 정규숙 정훈모 차병용 최기호 최진수 송마이클 한길선례
	합계:\$4,245		합계 : \$2,235
주일미사 헌금 : \$2,586			

◆주일학교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 제목: 마르코 복음 (Mark), 노트 제공 (2월 8일)
- 대상: 주일학교 모든 학생
- 필사 마감: 3월 29일까지 담당 교리교사에게 제출
- 시상: 부활 대 축일 미사 중 (4월5일)

*시상은 전권을 필사한 아이들에게만 한함

◆주일학교 십자가의 길 스케줄

초등부

Feb 22: K-1st grade

March 1: 2nd-3rd grade

March 8: 4th grade

March 15: 5th grade

March 22: 6th grade

중.고등부 : 사순 피정에서 진행됩니다

◆한국학교 설날행사

- 행사목적 : 설 행사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배운다.
- 일시 : 2월 22일 일요일 오후 12:00 ~ 오후 3:00
- 장소 : 백삼위 한국 학교
- 일정 : 12:00 ~ 12:30 설에 대하여 알아보기
12:30 ~ 13:20 신부님께 세배
13:20 ~ 15:00 전통 놀이 배우기
(윷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 103위 성당 봉사활동 프로그램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Volunteer 시간을 받을 수 있는 성당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발족 합니다. 매주 일요일 9시30분 미사 전,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친 교장에 있는 의자와 책상 먼지를 닦아내는 활동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서는 사무실에 비치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추후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유허희 바오로 991-4838 2/14(토) 오후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2/14(토) 오후 6시 성당강당
	3	박현희 프란체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체스코 592-4739 2/13(금) 오후7시30분 성당 1층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김충섭 마틴 530-3010 2/14 (토)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2/14(토) 오후5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2/13(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용 스테파노 625-3312 2/20(금)오후 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테레사 634-6923 2/13(금) 오전11시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이상철 크리스토퍼 818-6903 2/14(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조화숙안젤라 & 박카타리나 2/9(월) 오후 7시 성당강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	박진수 스테파노 / 749-3151	주영애 켈마 749-3151 2/7(토)오후 7시
	3	1,2반과 같음	
P. V. 남정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PV구역 합동 반모임377-6659 2/14(토) 5시 남성철 베네딕도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합동 반모임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합동 반모임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합동 반모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의 오후1시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반장회의 오후1시



2015년 사순 시기 교황담화문(요약)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야고 5,8)

사순 시기는 온 교회와 모든 공동체와 신자에게 쇄신의 때, “은혜로운 때”(2코린 6,2)입니다. 하느님께 서는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떨어질 때 우리를 애써 찾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지내고 편안할 때, 잘지내지 못하는 이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 속에 빠집니다. 이 담화에서 제가 살피보고자 하는 것은 무관심의 세계화입니다. 이웃과 하느님께 대한 무관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현실적인 유혹입니다. 무관심해지지 않고 쇄신을 위하여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묵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1.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1코린 12,26)

교회: 하느님의 사랑은 교회의 가르침과 그 증언을 통하여 무관심이라는 사슬을 끊어 버립니다. 사순 시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좋은 때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성사들을 받을 때, 특히 영성체를 할 때에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체이기에 무관심이 몸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 누구도 다른 이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인들의 통공으로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사를 공유하며 이 은사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집니다.

2.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창세 4,9 참조)

본당과 공동체: 이 모든 것은 우리 본당과 공동체의 생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천상 교회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사랑으로 무관심을 이긴 공동체가 됩니다. 천상 교회의 성인들은 우리의 여정에 늘 함께 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지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고통 받고 신음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하신 사랑의 승리에 대한 천상 기쁨은 완전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자신을 벗어나 가난한 이들,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과 함께하라는 부르심을 받아 파견됩니다. 침묵하지 않는 사랑을 모든 이에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이웃 안에서 형제자매를 바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자매가 지닌 모든 것은 교회와 온 인류를 위한 선물입니다. 우리 본당과 공동체가 무관심의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자비의 섬이 되어야 합니다.

3.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야고 5,8)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는 무관심의 유혹을 받고 있으며, 자신이 다른 이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무능력하다고 느낍니다. 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상 교회와 천상 교회의 일치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의 힘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3월 13일과 14일에 ‘주님을 위한 24시간’기도를 바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선 행위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순 시기는 우리가 한 인류 가족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고통은 회개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형제자매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겸손 되어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혼자 힘으로 세상과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사악한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무관심과 혼자 힘으로 충분하다는 우리의 자만을 극복 하기 위하여 하느님께 열려 있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형제자매에게 다가가도록 사랑의 길로 이끄시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다른 이를 위하여 자신을 거저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이 사순 시기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 이렇게 간청하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을 주님 마음과 같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는 굳세고 자비로운 마음, 세심하고 너그러운 마음, 자신 안에 간혀 있지 않고 무관심의 세계화에 현혹되지 않는 마음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기도묵상]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 걱정에서 벗어나 아버지에게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 프리드리히 폰 보델슈빙 -